

참고자료

(원불교 신문, 교역자 광장, 원불교사이트에 발표된 주 5일 근무제에 관련된 견해)

1. 주 5일제 근무방안 교화활성화 기회 삼아야¹⁾

박주명 교무

(본지 편집부장)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안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교화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교정원 각 부서에서는 대책모임을 가졌다. 교정원의 결론은, 주 5일제 근무에 대해 확정된 방향은 현재 없다. 앞으로 5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인터넷 등을 통해 개설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본다. 교도들에 대한 욕구와 일반 사회인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교화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성장을 위해 사용할 여가의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를 교화활성화의 절호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단의 대처 방안으로 △정기훈련의 정착 △탄력적인 법회운영 △다양한 교당과 법회프로그램 개발 △관광지 교당 개설 △중앙총부 법회의 변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어 △각 훈련원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 주말 탁아소 운영 △교도들의 여가 시간을 복지기관이나 농촌교당에서 봉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특히 교당 교무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나의 교당 교도만이 나의 교도라는 생각을 접고 원불교 교도이며, 대중사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출가교도들도 능력 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로 알고 삼대력을 갖추는데 적극

1) 원불교신문 원기 86년(2001) 10월 12일 금요일(주간) 제1121호

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러한 대안들과 함께 기획실에서는 출·재가 교도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보다 나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교당 운영, 획기적 발상 필요²⁾

문향허 교무

(본지 취재부장)

교단은 그동안 현장교화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교화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우리 교화가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따라 처방도 가지가지이지만 필자는 교당 운영 방식을 학원식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현재 대부분의 교당 법회는 토·일요일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수요일이나 모임공부 등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법당을 1주일에 한 두 번 법회 볼 때만 사용하는 교화 패턴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교단 초창에는 일요일에 정례적으로 법회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이 드신 교도님 가운데는 정례법회와 인과법문으로 발심했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요일 법회나 인과법문으로 발심했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과거에는 통하던 교화패턴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교화 패턴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본다. 일요일 아침, 힘들게 법회에 참석하지만 법회가 ‘지루하다’고 하는 교도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도들의 발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회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2) 원불교 신문 원기86년(2001) 10월 12일 금요일 (주간) 제1121호

이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그들이 골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예컨대 교리학교, 마음공부, 요가교실, 다도교실, 명상교실, 자원봉사센터, 공부방 등 다양한 강좌를 열 수 있다.

아니면 마음공부 하나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마음공부도 단전주선, 정전마음공부,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십상서원선, 문답감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공부길을 잡을 수 있고 교화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교리대로라면 교당이 곧 훈련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교화관념을 뒤집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회를 비롯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토·일요일은 쉬는 교화패턴은 어떨까. 이미 명상단체나 단전호흡 계통은 학원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종교도 내용적으로는 매일 문을 열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하고 있다.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혁신론’을 통해 시대화·대중화의 방법을 제시했듯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변해야 한다. 물론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진지한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주 5일제에 대비하여3)

박용덕 교무
(가수교당)

원불교 교화는 1960년대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제 암흑기에 농촌사회에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던 상록수 운동, 문맹퇴치, 불평등 구조에 대한 계몽 교화는 농촌 주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 정부가 새마을 운동과 아울러 중공업 정책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교육의 혜택이 보편화되고 도시 집중화가

3) 교역자광장 ‘의견제안’ 에 올린 글(2001. 9. 23 오전 6:15:46)

되면서 교단은 그에 맞는 새로운 교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보가 신속화되고 공개화되므로 은악양선을 미풍으로 여기는 교단 풍토도 더 이상 온상 속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교화하지 못한다. 전통불교나 서구의 기독교 등 노대 종교는 출생이나 결혼, 장의 등 의식을 치를 때만 이용될 뿐, 더 이상 민중 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동산 매물이 교회라고 한다.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교회는 텅 비어 자동차를 타고 와 그 속에서 잠깐 예배를 본다고 한다. 요상스럽게도 기독교가 극성스럽게 잘되는 곳은 한국인데, 일제 당시 이를 신선한 문화로 여겨 우리 교단은 기독교식 주일 예배를 채택하였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평균 30명 미만 나오는 교당은 더욱 한산하여질 것이다.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은 도별로 여교무들의 합숙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각 교당은 특성화를 살려 다양하게 운영하며, 훈련원의 레저 활용 등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화도 다양하게 시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가교단은 기성 종교의 비구니, 수녀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원불교가 출현하여 소외된 억눌린 여성들에게 단상에 나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 언론을 열어준 것은 엄청난 의식 개혁이다. 그때는 어둡고 막힌 시대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고등 교육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교감한다.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시대에 왔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된다. 주 5일 근무제를 통하여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

법회 운영도 다양성을 기해 정기 법회라든가, 시간과 장소에 국집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식순에 의한 의식 진행의 딱딱함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고정된 경전, 암송 등의 의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상의 체험 위주의 생생한 법회가 되어야 한다. 14인치 화면 앞에 자판을 두드리면 무한대의 열린 정보, 광고의 홍수시대에 실지 효과가 없는 수행 방식은 더 이상 존립할 기반을 잃을 것이다. 더 이상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대순진리회 증산도 등 대부분의 신흥 종교가 내거는 무상 대도, 전무후무 5만년 대운의 핑크 빛 기대감 등은 광고 홍수시대에 검증되지 않는 공허한 구호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교단의 특수 상황이 다른 곳에 쉽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즉각적으로 비교 검색 당하고, 시대에 앞서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미국 테러 대참사 사건이 얼마

동안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겠지만 이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강대국과 약소국의 허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강대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리하게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지만 반미주의자는 갈수록 늘 뿐이다. 대량화 주입식 세뇌 교육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체험의 시대가 왔다. 이런 체험 문화를 주 5일제의 훈련장을 통하여 체감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녀 제도는 여권 신장의 한 방법으로 일제하 당시의 교단 유지의 해결 방법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당시는 독신으로 살기가 결혼하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다. 당시로서는 정녀제가 여성 지도자 활동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었다. 지금은 남녀 교제가 자유롭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고,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장을 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독신주의의 편법을 보편화할 필요는 없다. 80년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원불교만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고집하지 말라. 불법연구회 시대에는 급여 문제, 남녀 활동, 교육 상황이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열려 있었고 진보적이었다. 왜 오늘날은 일반 사회를 앞서지 못하는가.

경제, 훈련

이제까지의 관공서나 기업, 교육기관 등의 급여 제도는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으로 구성원들을 살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행정 체계와 교육과정이 과연 국민들에게, 피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 보라.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운 수학 공식 하나, 대학의 커리큘럼이 평생을 두고 얼마나 써먹느냐는 것이다. 억만분의 1도 써먹지 못할 것이다. 교육을 위한 교육, 몇몇 소수를 위한 행정 제도가 아니었던가.

극히 빈약한 용금 체계의 확보를 가지고 여기에 평등을 주장하는 정녀들과 나뉘는 문제 가지고 불안해 하는 교역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용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누가 주는 급여가 아니라 스스로 벌어야 한다. 자생력, 자활력을 복돋우야 한다. 이 대책은 현 출가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

경제 문제는 출가 재가의 차별이 제거되면 간단히 해결된다. 출가 교역자를 양성하자면 교육 시설과 운영비, 육영장학금 등 엄청난 예산 투자가 요청된다. 더 이상 차별화되는 대상이 없고 교화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교육 기관은 생략되고, 출가

교역자라는 개념이 사라지니 유지 관리할 교당도 인건비도 필요 없다.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 교역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합목적적인 공동체 생활을 말한다. 이 공동체 생활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신용 공동체이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여 '믿음'을 상표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므로 갈수록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구매력도 상승된다. 인간관계에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다. 불신시대에 살아남는 왕도는 신용이다.

원불교라는 이 도덕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건성 인가를 받고 법명을 받아야 한다. 100일 정도의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진리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원불교의 기본 정신을 확립하는 핵심중의 핵심 훈련과정이다. 대종사께서 영산에서 방언공사 후 산상훈련을 통하여 내놓은 이 화두(암호문)를 우리는 제대로 해독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였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법명을 받아 비로소 원불교 교도가 되는데, 지금처럼 입교비 1000원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행위로서 통하지 않는다.

이 훈련과정은 사무여한 과정과 무아봉공 과정 2과정으로, 각 1주일, 2주일이면 통과한다. 이 두 과정을 통해 불가에서 말하는 건성인가와(현행의 법위등급으로 말하면 예비법강항마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법명을 받고, 원하는 자는 각기 적성에 맞는 도덕공동체에 입촌하여 양성(보임), 솔성공부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남, 정녀, 세대전무출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전한 입지가 서지 않으면 원불교 교도가 될 수 없다.

사회에 직장이 있어 입촌 할 수 없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다. 이른바 기한전무출신이라 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시간제 또는 1일 전무출신, 1주일 전무출신, 1개월 전무출신 할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은 없다. 여기서의 전무출신의 개념은 행위 개념이다.

도덕공동체

도덕 공동체의 덕목은 인위법보다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나 제도는 억압이고 악법이다. 인정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도가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에는 출가가 재가 앞에 균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남녀 또는 부부 공히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제도면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다. 임신부가 어떻게 대중 앞에 나가 설교를 하느냐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법력이 최고 가치이다.

출·재가의 외형의 구분보다 법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별이 있을 뿐이다. 출가 교무든 재가 교도든 주객의 차별이 없으며 법통도 법력의 등위 따라 직통한다. 원불교인이라면 영육이 아울러 건전해야 할 것이요, 정신 물질적으로 결합이 없어야 될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는 원만구족하고 자공무사한 원불교인이 아니다. 설교 단상에 오르는 것도 지자본위의 사요 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출가만이 독점적으로 오르란 법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법 있는 사람이 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아기를 뱀 사람이든 허리가 구부러진 백발노인이든 구분이 없다.

실제 대종사 당대에는 재가·출가 구분 없이 강연하였고 원평, 하단, 신흥, 서울교당에 재가회원이 교무로 선임된 적이 있었다.

대종사 당대만 하더라도 교무는 훈련직과 교화직 근무자의 직명이지 직위가 아니요 설교 단상은 출가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주 5일 근무제, 교단적 대안 모색4)

본지 정도연 기자

법회시간 다양화, 훈련원 기능 강화 논의

주 5일 근무제 추진에 따라 교단적으로 법회의 다양화와 훈련기관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회시간 다양화, 훈련원 기능 강화 논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국민들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변화를 예고하

4) 원불교 신문 원기86년(2001) 9월 14일 금요일 (주간) 제1118호

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조사결과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74.1%가 찬성했으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7.2%였다. 또 주 5일 근무제 시행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4%를 차지했다.

주 5일 근무제는 웬만한 외국계 기업이나 선진적인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진국처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큰 무리없이 머지않아 정착될 듯 싶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 문화, 교육, 관광레저 분야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인 풍속도나 현대인의 생활리듬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또한 일과 직장 중심의 생활 문화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레저와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에 치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와 가톨릭은 주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문제로 인해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지만 신학적 이론을 모색하고, 사목대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주말의 생활여가를 불교적으로 흡입하는 전략을 세워 법문중심의 포교에서 다가서고 베푸는 전략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는 공동체 단위의 가족적인 요구와 다양한 욕구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종교만이 법회(예배)현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교정원에서도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정책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4일 교정원 간부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로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2가지 입장이다. 재가교도를 위한 교화적 측면과, 출가교역자의 교화인력 창출문제이다.

교화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법회시간의 다양화이다. 요컨대 법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수요일법회 활성화, 기존의 일요일 법회시간을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일요일 이른 아침 법회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당을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선방, 각종 문화교실,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급선무다.

셋째, 훈련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상시훈련이 다양화되고, 여행, 휴양, 훈련, 문화답사, 관광, 등 여러 가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교화이다. 온라인상에서 의식, 교리, 설교, 문답감정, 교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당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출가교역자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출가교역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신간 삶의 질 향상, 사기 강화, 희생 봉사에 상응한 보람 창출, 재가교도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매주 월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연중 일주일 이내의 휴양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정착, 실력향상을 위해 휴양년을 갖는 조항의 확대, 연가는 년 14일에 한하는 규정 등을 정착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거론됐다.

한편, 기관교무들을 교화인력으로 활용하고, 정토회원을 교화보조 인력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교역자가 오히려 업무과다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교역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현재의 용금 수준으로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됐다.

우리 교단에 있어서 주 5일 근무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교당과 교도, 교무에 대한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교당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당을 지향해야 하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문답감정의 도량으로 전문화 돼야한다. 교무는 교도들을 지도하는 영적지도인으로서의 높은 수준을 갖춰야 한다. 특히 내 교당, 내 교도, 우리 교무의 틀을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교단적 대안모색과 관련하여5)

김중훈(kjhsjw@hitel.net)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교단적 대안모색 방안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회시간의 다양화, 교당 개방프로그램 운영, 훈련원 기능 및 시

5) 재가교도 입장에서(원불교 자유게시판-2001. 9. 16 11:46)

설변화 등등... 이와 관련하여, 재가교도 입장에서 원불교 교단에서 이 점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레저 및 휴양, 관광 등으로 시선을 돌릴 것은 자명하므로 타지역방문의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불교는 내가 속한 교당이 아닌 타지역, 타 교당의 법회에 참석하였을 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일까요? 원불교는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런지 처음 보는 교도는 교무님들이 무조건 신입교도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와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그리고 타지역 타교당의 법회에 참석하다보면 해당교당에 속한 교도님 위주로 법회시간을 끌어가시다 보니 타 교당에 참석한 교도들은 소외되는 것 같고....

이제 교당의 법회운영에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교당운영과 법회운영을 구분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글로벌시대라고 하여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교당의 전체적 운영은 소속 교도님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법회운영은 내 교당 교도님을 위주로 한 법회운영보다는 포괄적인 법회운영으로 타 지역 교도가 법회에 참석하여도 거부감이 없는 법회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법회 출석과 관련한 교도의 체계적 관리건의입니다.

현재 타 지역의 법회에 참석했어도 교도님이 자기담당 교무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체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도 자신의 마음공부를 위하여 참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타지역 교당 교무님께서 그 교도의 교당에 전화해서 법회 참석했다고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원불교는 타종교와 달리 법위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법위사정에서 법회출석은 법위사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완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법회도 논의되고 있는데 전국 각 지역의 교당에 컴퓨터와 인터넷은 거의 구비되었을 것인데 전산화 작업에 신경을 써 타지역에서도 법회에 참석하였을 때 출석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그러면 굳이 교도님이 교무님께 보고 드릴 것도 없고 교단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법위사정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셋째, 전국 각 지역의 훈련원의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회시간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있는 교구청 그리고 교당 및 훈련시설들을 교도들이 휴양, 레저,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훈련원을 훈련의 기능으로써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교도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로도 생각한다면 교도는 자연 모일 것이고 그곳에서 법회시간만 조정하여 법회를 실시한다면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하면서 법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자유스럽게 이용하다보면 원불교 교도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너무 많아졌네요. 얼마전 천주교를 신앙하는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속한 성당은 아니었지만 타지역 타성당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 부분을 교도 자신의 역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단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사회생활의 특성상 교당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고, 또 일요일날 타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당에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어색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중에 주변에 원불교 훈련원을 두 고서도 깨끗하지 못한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쉽게 느낀 점들과 결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교단의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재가교도는 이렇게도 생각한다고 참조해 주시고 저희를 교당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교화전략을 세우자⁶⁾ (원불교 신문 사설)

정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 추진계획을 보면 마련된 안을 가지고 8월말까지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11월까

6) 원기86년(2001) 8월 24일 금요일 (주간) 제1115호

지 입법 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주 5일 근무제도는 말 그대로 1주일에 5일만 근무하고 2일간은 쉰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는 고용창출과 생산성 제고, 레저산업 촉진을 크게 들고 있다. 근로자 한 명이 하루 덜 근무하는 것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레저산업을 일으켜 연계된 산업을 촉진시킨다는 희망이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이 제도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상조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하였고, 일반 근로자와 사회분위기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 5일 근무는 시행시기 등 문제점을 협의하여 시행될 것 같다. 일주일에 5일은 근무하고 토, 일요일을 쉬면 2일간을 어떻게 보낼까?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국민을 선무(宣撫)하고 있는 것처럼 여가를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에 투자하고, 건전한 휴식으로 생산성 제고에 선용될 것인가? 아니면 2일간의 무료함이 정신해이를 가져오고,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져 오히려 생산성 저해와 퇴폐적 문화를 낳게 될 것인가?

여기에 교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쉬는 2일간을 어떻게 교화와 연계할 것인가? 교정원에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교화전략이 서야 하고, 교당에서는 교화전략에 따라 현장에 맞는 교당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 교화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뒷 차를 타야한다.